

# 옛 다케시마와 일본인

다케시마에서 오키 주민들이 강치를 잡거나 미역을 따는 모습입니다.



1934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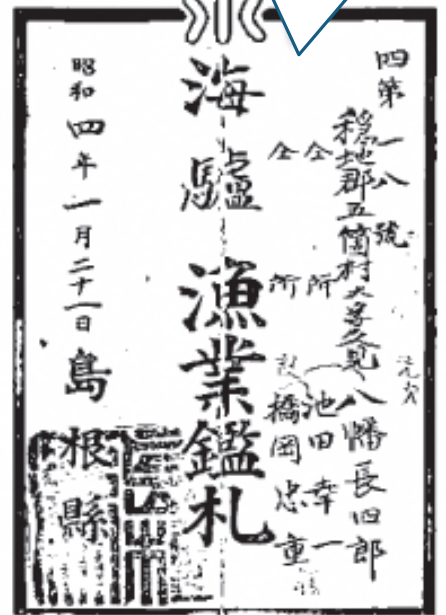


1934년



1954년

시마네현이 발행한 강치 사냥 허가증입니다.



1900년경부터는 일본 사람이 다케시마에서 강치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.

다케시마와 일본인은 이렇게 관계가 깊구나!

